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중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그린·레드바이오 융합 '재생의료 중심 의생명 바이오 거점' 조성 도,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제시

2024 세계바이오혁신포럼

김관영 지사 "향후 5년간 바이오기업 150개 유치 내년부터 연구개발 지원 규모 200억 이상으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 산업 육성 목표를 그린바이오와 레드바이오의 융합으로 재생의료 중심의 의생명 바이오 거점 조성으로 잡았다.

18일부터 19일까지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2024 세계바이오혁신포럼이 열리고 있다.

이번 2024 세계바이오혁신포럼(World Bio Innovation Forum, 이하 WBIF)은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와 카이스트(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이 주최하며 '메디컬푸드 및 기능성식품, 줄기세포치료 및 오가노이드'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바이오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여 최신 연구 동향과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1일차에는 '메디컬푸드 및 오가노이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고, 2일차에는 '줄기세포치료와 오가노이드' 기술에 관해 논의가 이뤄진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포럼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을 소개하며, 바이오 산업 육성목표로 '그린바이오와 레드바이오의 융합으로 재생의료 중심 의생명 바이오 거점조성'을 제시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의 바이오 산업 현황에 대해 IG화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2024 세계바이오혁신포럼에서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하립, 품립파마텍과 같은 전북의 대표적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국내 유일의 독성평가 시험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국내 유일의 방사선 비임상 연구소 '첨단방사선 연구소'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산업기반을 소개하며 전북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바이오 기업유치와 관련해 전북이 과거 연평균 바이오 기업 5개사를 유치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오가노이드 스타트업', 'JBR랩'과 같은 바이오 선도기업 30개사를 유치함으로써 올해 목표의 120%의 실적을 달성한 바 있으며, 향후 5년간 바이오 관련 기업 150개를 유치해 전북의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부문은 2025년부터 바이오 관련 기업의 연구

개발(R&D) 지원 규모를 200억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까지 1,274억 원 규모의 레드바이오 전용펀드를 조성해 바이오 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도내 의 기관 및 대학과 협업체 의사과학자, 메카노바이오헬스전문인력, 제약산업 미래인력 등 바이오 분야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 분야 규제완화와 관련해에서도 최근 미국과 EU 등에서 헬프(의료용 대마) 사용과 재배가 합법화되고, 국내에서도 헬프의 의료용 원료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례를 활용해 전북이 헬프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글로벌 협력방안으로는 지난 9월 독일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 연구소 내 개소한 전북

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대학에서 석·박사 2명을 파견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전북 바이오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내년에는 '보스턴 오픈노베이션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세계 바이오산업의 자금과 기술이 모이는 보스턴에 전북의 바이오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연계 컨설팅, 바이오 USA 참가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바이오 산업은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이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독립예술영화 거점 '첫 삽'

시, 영화의거리 옛 옥토주차장 부지서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공사 착수

전주시가 대한민국 독립예술영화의 거점이자 전주국제영화제의 주무대가 될 '전주 독립영화의 집'을 짓기 위한 첫 삽을 떴다.

전주시는 18일 고사동 영화의거리 옛 옥토주차장 부지에서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주 독립영화의 집은 오는 2026년 10월까지 국비 등 총사업비 720억 원이 투입돼 옛 옥토주차장 부지(고사동 340-1번지)에 연면적 1만3702㎡,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물 내부에는 △독립예술영화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전용 상영관 3개관(206석, 144석, 133석) △후반제작 시설(색보정실, 음향마스터링실) △전주국제영화제 사무공간이 들어선다. 야외광장도 갖춰질 예정이다.

시는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건립되면 독립예술영화의 제작부터 유통, 상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영화 관련 행사를 지원해 영화 산업생태계 조성 및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0월 발표한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수도, 전주' 비전에 따라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과 함께 고사동 영화의거리에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를 유치해 글로벌 영화영상 혁신기술 교육거점을 마련하고, 국가전략사업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유치함으로써 페스티벌과 퍼레이드 등 역동적 K-콘텐츠 볼거리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전주 독립영화의 집 조감도

또한 시는 지난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숲인 전주' 시나리오 공모전을 시작으로 문화콘텐츠 IP 확보 및 지원에 나서고, 영화의거리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확대 지정해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 창업생태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설계에 착수했으나 사업 부지에서 전주부성 북서편 기단이 대규모 발굴되면서 지하주차장 확장(206면) 등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시는 사업 전반 일정이 지연된 만큼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착공을 서둘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고, 문화재 보호조치, 부지 정리 등 사전 준비부터 철저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주 독립영화의 집 착공식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3월경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독립영화의 집은 독립예술영화 창작자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전주가 세계 독립예술영화의 중심 도시로 크게 발돋움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독립영화의 집 시공은 조달청 발주 결과 광원건설(전주)과 대창건설(성남), 양지건설(파천)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됐다. /김옥희 기자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도민 참여 이벤트 '다채'

퀴즈·해시태그·응원 댓글 등... '전북 소통대로' 통해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공식 SNS와 정책소통 플랫폼 '전북 소통대로'를 통해 진행되며,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다.

첫 번째 이벤트는 '퀴즈 이벤트'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퀴즈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두 번째 이벤트는 '해시태그 릴레이 캠페인'으로 오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함께하는 응원, #전북특별자치도, #2036하계올림픽 전북유치 지원'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만의 응원 이미지를 SNS에 공유하면 된다.

세 번째 이벤트는 '응원 댓글 이벤트'로, 오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전라북도 공식 SNS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응원 댓글을 남기면 자동으로 참여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도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이 제공되며, 구체적인 참여 방법과 당첨자 발표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www.jcc.or.kr